

독일, 유로강세 불구 화학수출 호조

2003년 화학 무역흑자 250억유로 ... 프랑스도 수출증가에 수입 감소세

유로화 강세로 유럽 화학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및 프랑스 화학기업들은 선전하고 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독일의 화학제품 가격은 200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 상승했으나 3/4분기를 전후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5월에 비해 3% 하락했다. 가격하락의 주 요인은 원유 가격 하락이나 저가의 수입품도 내수가격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무역가중치를 기준으로 유로화는 다른 외국 통화권 시장에서보다 달러권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유럽의 화학수출기업들이 달러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European Union(EU)에 따르면, 2003년 1-8월 유로존 12개 화학기업의 수출량이 2% 감소했으며 15개 EU 회원국의 화학 수출량은 약 1% 감소했다. 그러나 EU 화학제품 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의 화학제품 수출국인 독일은 1-9월 수출로 볼 때 2003년 전체 수출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2002년 수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동 유럽 및 중국 수출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화학제품 수출경향은 내수보다는 환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화학제품 수입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2003년 무역흑자는 약 250억유로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화학산업협회(UIC)는 2003년 프랑스 화학산업의 수출입 비율이 1.26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은 고정세를 나타내는 반면,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달러권 지역인 아메리카 및 아시아가 차지하는 프랑스 화학제품 수출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러와 관련된 시장에서 유럽 화학수출국은 지속적인 가격인하 및 마진축소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은 또한 유로화 강세로 몇몇 화학분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아직 유럽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수입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수요증가로 파악되는데, 특히 독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유럽의 화학제품 수요는 약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에도 유로강세가 지속되면 수출입 경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저코스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포트폴리오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12>